

SBS 매거진 1

2000



SBS 2000년 연중 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

TV Ch 6 / POWER FM 107.7MHz / 표준 FM 103.5 MHz / <http://www.sbs.co.kr>

CONTENTS



표지설명

삶이 묻어나는 뉴스를 꿈꾼다는 주말 「SBS 8 뉴스」의 고희경 앵커. 당찬 근성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나 있는 그녀의 기사는 믿음직스런 SBS 뉴스 만들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진/서창식

- 04 **2000년 SBS 연중 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
- 06 **2000년 SBS 대기화**
- 10 **새 드라마 / 주말극장 「왕룡의 대지」**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우리네 이야기 · 박근애
- 16 **다큐멘터리 / 신년 특집 3부작 「생명의 기적」**
이미 시작된 탄생의 혁명 · 박정훈
- 20 **프로그램 탐험 / 「접속! 무비월드」**
영상문화 시대, 우리 영화 지킴이 · 이영옥
- 22 **밀레니엄 특집**
I 2000년 세계의 표정
II 2000년을 말한다
- 30 **줌 인 / 장혁**
- 32 **커버스토리 / 고희경 앵커**
삶이 묻어나는 뉴스를 꿈꾼다 · 이병률
- 36 **방송가 사람들 / SBS 관리본부 송신소**
프로근성으로 무장한 방송의 최첨병 · 이언영
- 40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42 **라디오 세상 / 표준FM**
「아름다운 세상 손속, 배기완입니다」 · 전옥란
- 44 **라디오 세상 /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오지영
- 46 **TV 및 라디오 편성표**
- 51 **이제는 생명이다 · 유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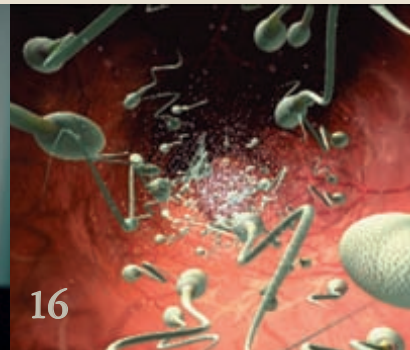
SBS 매거진

SBS 매거진 2000년 1월호

- 통권 제98호 2000년 1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5316
- 발행 · 편집인 / 송도균 주간 / 박준영 부주간 / 이근용 기획 / 남지혜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369-1114 • 편집 · 디자인 / 비 group, 전화 382-3828 • 스캔 및 출력 / (주)스타트, 전화 2264-2050
- 인쇄인 / 이진호 인쇄 / (주)영은문화사, 전화 2274-9250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sbs.co.kr>입니다.



28



16

2000년 SBS 대기획

지난 1900년대 우리는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무한 경쟁 그리고 정제된 가치관 속에서 혼돈을 빚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제 속에 '더 편리하게, 더 안락하게'를 꿈꾸며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다.

이제, 사람들은 세기말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슴 속에 품고 새 천년을 맞는다.

SBS는 새 천년을 맞아 공동체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2000년 한 해 동안 생명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다. '생명존중 정신의 회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를 전개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

새로운 천 년, 새로운 희망을 열어 가는 SBS 대기획은 ① 2000년 연중 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 ② 새 천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 '새로운 도전, 미래를 연다' ③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고맙습니다' ④ 스포츠 코리아 (시드니 올림픽, LPGA 특별중계) ⑤ 기획시리즈 '뉴 밀레니엄의 푸른 세대, ⑥ 한국 5대 작가 연작시리즈 제작 ⑦ 우리의 소원은 통일 ⑧ 미래산업 특집 다큐멘터리 '디자인이 돈이다' ⑨ SBS 인터넷 '게임, 애니메이션 세상을 열자' ⑩ HDTV 시대 개막 등이다.

1

2000년 연중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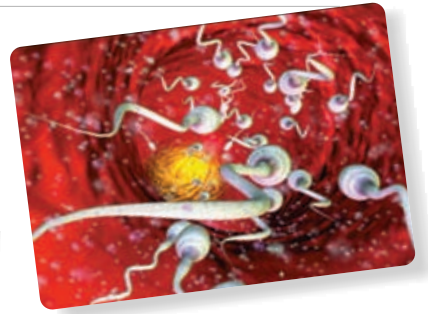
SBS는 새 천년의 첫 해에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인간, 자연, 환경 등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정신혁명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연중기획으로 '이제는 생명이다'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탄생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3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을 방송한다.

연중 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연중 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를 기획했다. 버려진 아이들, 환경공해, 자살 등 우리 사회에 팽배한 생명 경시 풍조

에 경종을 울리고 황금만능주의로 멎들어가는 현 사회의 모습을 지양하기 위해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명운동을 전개한다.



「생명의 기적」

인간 탄생의 신비로운 전 과정을 과학적 접근과 실험 취재를 통해 제시한다. 3차원 그래픽, 정교한 모형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분만문화와 방법, 고위험 산모들의 극적인 출산 사연 등을 3부작으로 엮어 새 천년 초에 소개한다.

2

새 천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 '새로운 도전, 미래를 연다'

지난 천 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는 분기점에서 SBS는 응비하는 한국의 기상과 도전 정신, 미래의 희망을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송한다.

「비전 2000」

'새로운 도전, 미래를 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새 천년의 비전과 희망을 담은 특별 생방송 「비전 2000」을 방송한다. 1999년 12월 31일 16시부터 2000년 1월 1일 정오까지 20시간 동안 국내외 밀레니엄 맞이 현장과 밀레니

엄 축하 이벤트 등을 생중계하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보·오락 프로그램 「굿바이 1999, 아이 러브 코리아」, 「쇼 2000」 등 다채롭게 진행한다.

「새 천년 세계 평정 한국인이 간다」

5대양 6대주에서 활약중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모습과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겪은 오지체험 등을 통해 한국인들의 개척정신을 전달하는 「새 천년 세계 평정 한국인이 간다」를 제작, 방송한다.

3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고맙습니다'



한국 방송문화를 선도하며 민영방송의 선두주자로 지난 91년 첫 발을 내딛은 SBS가 오는 11월 14일 창사 10년을 맞는다. SBS는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창사 10주년 대공연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내외 포크송가수들이 총출동하는 「SBS 뮤직 페스티벌 2000」을 개최한다.

아 창사 10주년 대공연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내외 포크송가수들이 총출동하는 「SBS 뮤직 페스티벌 2000」을 개최한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사 10주년을 맞아 국내 인기 연예인이 총출동하여 펼치는 시청자 감사 이벤트를 마련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SBS 베스트 프로그램 소개도 할 계획이다.

「SBS Music Festival 2000」

폴 사이먼 등 세계적인 포크송 가수들과 함께 일본, 홍콩, 대만의 인기 가수를 초청, 「SBS 뮤직 페스티벌 2000」을 마련한다. 이 행사는 시대를 함께 해 온 마음의 소리인 포크송의 멜로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 속의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해왔다. 올림픽에서의 상위권 진입은 물론, 아시아의 축구강국으로 자리잡았고,

특히 지난 한 해는 야구와 여자 골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이러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SBS는 특별 계획을 준비 중이다.

SBS는 9월 열리는 시드니 올림픽을 보다 생생한 중계를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 경기 전부를 완벽하게 중계하는 「시드니 올림픽 특별 중계」를 계획 중이며 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등 한국 여자골퍼들의 대활약상을 「LPGA 주요 경기 생중계」로 보여 줄 예정이다.

새 천년의 주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온 SBS는 2000년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켜 어둠 속에 가려진 어린이를 사회로 이끌어 내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선도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애 이야기」

죽음의 문턱에서 이웃의 온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신애의 사연을 밀착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방송, 신애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조금은 나은 삶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뉴 밀레니엄의 푸른 세대」

시리즈물로 진행될 이 프로그램은 새 시대를 열어갈 청소년들의 미래관을 확립하고 내일의 주역으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소년의 교육, 인권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미래좌표를 제시, 삶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드라마왕국 SBS가 새 천년을 맞아 텔레비전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연다.

드라마 발전을 위해 꾸준히 투자, 연구해 온 SBS는 보다 알찬 드라마 제작을 위해 한국 5대 작가 연작 시리즈를 비롯 「경찰특공대」 등의 대작을 준비 중이다. SBS 드라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희망과 인생을 새롭게 조명, 시청자를 찾아간다.

「경찰특공대」

김석훈, 배용준, 이종원, 황인영, 김상중, 전광렬 등 호화 캐스팅으로 이뤄진 「경찰특공대」는 창사 10년을 맞는 SBS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특별 기획 드라마. 「경찰특공

대」는 경찰 특공대의 활약과 함께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야망을 담는다. 특히 사전 제작으로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선보일 계획이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향한일보 전진. 갈등과 대립의 20세기를 넘어 온 국민이 함께 하는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SBS의 의지를 한데 모아 「한국전쟁 50년 통일의 길로」와 북한 어린이돕기 「기아체험 24시간」을 기획했다.

「한국전쟁 50년 통일의 길로」

한국전쟁 이후 50년. 반목의 세월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통일대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다. SBS는 통일

에의 열망과 희망을 담은 「한국전쟁 50년 통일의 길로」를 제작, 방송한다.

북한 어린이돕기 「기아 체험 24시간」

「기아 체험 24시간」은 직접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모금을 벌여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을 전한다.

이 행사는 북녘땅에서 외롭게 태어나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 패션 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대마당 「SIFAC 2000」을 개최하고, 미래산업의 새 시각을 전할 특집 다큐멘터리 「디자인이 돈이다」를 제작, 방송한다.

「SIFAC 2000」

SBS는 새천년의 패션을 제안하고 우리나라 패션의 이정표를 제시할 서울국제패션콜렉션을 개최한다. 전세계

패션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다.

특집 다큐멘터리 「디자인이 돈이다」

디자인 업계의 우리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새 시대에 맞춰 산업에 대한 미래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의 산업 전략에서 탈피, 미래 감각에 맞는 산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SBS인터넷은 시청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최첨단 '게임, 애니메이션 세상을 열자'를 펼쳐 디지털 세상의 리더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게임, 애니메이션 등 인터넷 콘텐츠 개발 사업에 일반인들을 지분에 참여시키고, 내용을 공모하는 등 국민 벤처 사업을 전개한다. 먼저 게임, 애니메이션계의 역량있는 작

가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멀티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국민과 함께 제작 홍보하는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SBS는 디지털방송의 총아 HDTV 방송의 차질 없는 준비로 완벽한 시험방송을 실시하여 방송기술의 신기원을 이를 예정이다.

디지털 고품질 선명 방송, 가시화된 디지털 세상의 실질

적인 문을 열게 될 HDTV는 현재 SBS에서 실시중이며 프로그램과 제작물에 적용, 21세기 방송의 새 신호를 만들고 있다.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우리네 이야기

새 드라마 | 주말극장 「왕룡의 대지」

기획/이종수, 원작/박영한, 극본/김원석, 연출/이종한
2000년 1월 1일부터 토,일요일 밤 8시 50분 방송

농부에게 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혼란된 삶을 살다 많은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땅의 소중함을 찾게 되는 인간들이 있다. 10년 전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왕룡일가」의 후속편으로 방송되는 「왕룡의 대지」에는 그런 모습을 담았다. 그 안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학적, 감동적, 인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드라마를 통해 2000년대의 새로운 삶의 비전을 생각해 보자.



개 성적인 외모에 백구두와 야릇한 색깔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나와 시청자들을 자지리지게 만들었던 쿠웨이트 박, 엄청난 땅부자이지만 천하에 둘도 없는 자린고비 왕룡, 남편에게 평생 짝소리 한 번 못해보고 한평생 숨죽여 살아온 전형적인 촌부 오란··· 이들이 돌아왔다.

SBS가 「왕룡의 대지」로 2000년을 연다. 한적하기만 하던 수도권 인근 농촌에 어느날 도시 개발의 무자비한 바람이 불어닥친다. 이들의 삶의 질서가 순식간에 흐트러지면서 벌어지는 자잘한 좌충우돌과 돈벼락을 맞은 인간군상의 목표 잃은 질주를 그렸던 80년대 드라마 「왕룡일가」의 후속편이다. '예술(춤)' '프라스틱 사랑(플라토닉 러브)' 등 술한 유행어를 남겼고 이름 없던 연극계의 실력 있는 연기자들을 하루 아침에 스타로 만들어 주었던 이 드라마에 대한 애착은 연기자와 연출자 작가에겐 정그러울 정도로 끈끈한 것이었는가 보다.

인간적인 향수를 풍기는 개성 넘치는 인물들

작가 김원석 씨, 연출자 이종한 프로듀서는 오래 전부터 이 드라마의 후속편을 만들기로 은밀한 눈빛을 교환해왔다. 확실하게 자리잡은 스타들인 박인환(왕룡 역), 김영옥(오란 역), 최주봉(쿠웨이트 박 역), 배종옥(미애 역), 박혜숙(은실네 역), 장항선(이수 역), 조민수(서울대 역) 등 당시 출연자들도 진작부터 후속편을 만들자고 채근해왔다. 그때 출연했던 25명의 연기자 가운데 세월의 변화에 따라 출연이 어색해진 작가 역의 전무송, 옛장수 역의 윤문식 등이 아쉽게 빠진 채 10명이 합류했다.

방송사라는 '국경(局境)' 과 1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작가, 연출자, 배우가 '몽치는' 우리 드라마 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기 공부를 위해 미국에 있던 배종옥이 유학 도중 돌아오고, 방은진도 유학갈 준비를 마치고 꾸렸던 보따리를 도로 풀었다. 달라진 세월 만큼 부쩍 성장해버려 드라마의 한 축을 이루게 된 신세대 배우들이 고수급 선배 연기자들과 어떻게 조화될 지가 걱정거리였지만 다행히도 '상향 평준



“인생을 닮은 드라마 만들 터”

“89년 드라마가 끝날 때 화면 위로 막을 내리고 연극의 커튼콜처럼 갈채 속에 박인한 씨가 튀어나와 ‘여러분 곧 2부를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고 했어요. 그때의 약속을 지금 지키는 겁니다.”



「왕룡의 대지」의 연출자 이종한 프로듀서는 10년만의 첫 촬영 때 정말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어제 찍던 드라마를 오늘도 찍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실컷 웃다가 보면 그 속에 뼈가 들어있는, 천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직하고 단순한 데가 있는 사람냄새 나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를 그려낼 겁니다. 돈보다 소중한 어떤 것, 자기 정체성을 큰 아픔을 겪은 뒤에야 찾게 되는 우리 인생을 닮은 이야기들이 펼쳐지지요.”

연극계 출신으로 스타보다 이름없는 연기자들을 많이 발굴해 온 이종한 프로듀서는 「분례기」, 「관촌수필」, 「친애하는 기타여러분」 등 무게가 있으면서도 해학이 살아있는 작품들을 연출해왔다. SBS 드라마의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작품을 연출해 온 그의 숨씨가 기대된다.



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드라마는 그 동안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제 개발은 끝나고 궁상스럽던 살림살이들에도 '질적인 변화'가 왔다. 아이들은 자라 무서운 신세대가 되었고, 아버지 세대와는 내용은 다르지만 알 수 없는 인생의 큰 힘앞에 휘둘리고 중심을 잃은 뒤에야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근본에선 다름없는, 지지고 부는 일상생활의 세계 중심으로 부상했다.

왕룡은 엄청난 졸부가 되었지만 예전의 생활방식을 고수한다. 주막집을 하던 은실네는 번듯한 '봉필호프' 주인으로 변신했고 쿠웨이트 박과 나누던 '프라스틱 사랑'은 동거 형태로 성장했다. 소장수였던 이수능은 갈비집 주인이 되었고 10년 전 미애를 짝사랑하며 속을 태웠던 형수는 타고난 성실함으로 재산을 이력저력 모았지만 아직도 노총각 신세다. 변함없는 인물은 딸기코 흥씨로 아직도 술에 절어 살며 왕룡의 장남 석구 대신 왕룡의 땅을 갈아주며 생계를 잇는다.

여기에 9살 코짤짤이로 아랫도리를 흰히 드러내고 동네를 활보하며 얼굴에는 늘 땀국이 흐르던 봉필(장혁 분)이 반항기 있으면서도 순수한 구석이 있는 흰칠한 외모의 개차반 신세대로 등장해 드라마의 한 축을 이룬다. 봉필을 중심으로 그가 폭 빠져있는 이수의 딸 화정(박시은 분), 그녀는 대학은 겨우 들어갔지만 마음은 만화가라는 쿵발에 빠져있는 자기주장 강한 신세대이다. 화정의 짝사랑 상대이자 국립대학교 법대생으로 나오는 쿠웨이트 박의 아들 민호(소지섭 분), 봉필을 좋아하는 날라리 소녀 영숙(배민희 분)이 나온다.

필벽의 「대지」 주인공 왕룡과 그의 아내 오란에서 따온 대로 왕룡과 오란의 기본 성격은 변함이 없다. 졸부가

되었건만 여전한 노랭이로 돈 한푼에 벌벌 떨면서 한평생 일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농군으로 나오는 왕룡은 꿈꿨던 공이속을 갖고 접근하는 교하댁(김자옥 분)의 추파에 한바탕 늦바람의 불길로 빠져든다. 때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강이 최고라는 철학으로 쇠사슬로 돌을 얹고 도르레를 달아 만든, 스스로 고안한 '돌추'를 새벽마다 돌리는 그악스러운 인물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하나같이 개성이 넘치는 이들 인물은 겉으로는 우스꽝스럽고 속악한 냄새를 풍기지만 된장냄새 같은 인간적인 향수를 풍기는 인물들이다. 중동 불이 일 때 쿠웨이트 공사판에서 우연히 배운 춤기술이 평생 밑천이 된 쿠웨이트 박은 이제는 쇠락한 늙은 재미로 나온다. 하도 춤을 춰서 무릎연골이 닳는 바람에 발까지 저는 측은한 신세지만 쿠웨이트에서 번 돈과 여자들에게서 춤으로 후려낸 돈을 병든 마누라에게 죄 쏟아붓는 순정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고도 마누라가 죽자 그는 재미의 길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만다. 은실네도 쿠웨이트 박에게 따지러 갔다가 병든 마누라와 덩굴고 있는 어린 민호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끼고있던 금반지를 빼주고 온 정 많은 여인이다.

대학을 안가겠다고 입시학원을 땡땡이 치며 걸돌고 있는 봉필도 뻔뻔질함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왕룡의 딸 미애와 함께 동네 헛간에 카페 리오를 차리게 되는 경분과 경민도 개성적인 인물들로 각각 방은진 성동일 등 개성과 연기자가 맡아 드라마의 재미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인생유전과 좌절이 주요 테마

드라마의 무대는 결혼과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애 하나만 데리고 홀연히 고향을 찾은 왕룡의 딸 미애의 시선으로 묘사된다. 허허벌판은 거대한 아파트 촌으로 변했다. 아파트 숲에 고



1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꼬마들이 자라서 신세대가 되었고 논밭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신시가지지를 이루고 있다. 거의 모든 주민들은 신도시 시민으로 편입되어 도시인으로서의 수혜를 즐기며 살고 있으나 왕릉만 도시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부지로 수용되지 않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꾼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한다. 토지보상으로 줄부가 된 왕릉의 가족들은 보상금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시향락 문화에 오염되어 가족붕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되찾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급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대형 쇼핑센터와 스포츠센터가 촘촘하게 들어선 지역이다. 그야말로 새 밀레니엄에 어울리는 분위기다. 이런 곳 어디에 아직도 저런 곳이 남아있을까 싶은 구불구불한 농로와 외딴 집, 허름한 창고가 길에서 조금만 비껴나면 곳곳에 있다. 이런 배경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의 변화상이자 토박이 주민들의 인생유전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박영환의 원작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무대지만 10년 전 실제 촬영 무대였던 화정동에 그 동안 일어난 변화가 여실하게 묘사될 계획이다.

“당시 주인공 왕릉과 흡사한 배경과 성격을 지녔고 촬영 장소인 기왓집을 제공했던 72살의 노인을 수소문 끝에 찾았지요. 그 집은 헐렸지만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없는 허름한 집을 짓고 살더군요. 그 노인이 옛집에서 뜯어내온 문짝, 직접 아크릴 물감으로 옛집을 그린 송판을 새 집에 붙여놓았는데 그걸 그대로 빌려 소품으로 씁니다.” 이종한 프로듀서의 말이다.

화정지구 3분의 1 정도의 땅을 소유해 개발과정에서 100억대의 재산을 불렀다는 소문이 도는 그 노인은 지금도 농사를 지으며 부인과 단둘이 검소한 옛 생활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당시 토박이 주민들 가운데엔 돈벼락을 맞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돈의 힘에 부서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노름에 빠져 패가망신당한 이, 임대업을 겨냥해 건물을 지었다가 IMF로 갑자기 높아진 은행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해 망한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가족간의 분란 등 그들의 인생유전과 좌절이 이번 드라마의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화면 하나에 농촌 풍경과 아파트 숲이 잡히는 곳인 덕양우체국 뒤 왕릉의 새 집을 배경으로 해학적으로 펼쳐질 시끌벅적한 인간군상의 이야기가 여운이 있는 웃음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SBS**





이미 시작된 탄생의 혁명

제1부 : 탄생의 혁명이 시작되다

제2부 : 두려움 없는 탄생

제3부 : 태아로부터의 메시지

1999년 6월 12일 새벽 5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앤덜루즈 분만센터. 맨발에 목욕가운만 걸친 앳돼 보이는 산모 한 명이 도착했다. 올해 나이 18세의 재신타. 새벽 2시에 양수가 터진 후 3시간의 규칙적인 진통을 하다 온 것이다. 그녀는 마치 링에 오르는 선수처럼 목욕가운을 벗어 던지고 욕조 안으로 여유있게 들어갔다. 곧이어 카메라를 들고있는 나를 제외하고 여자들이 모두 나간 뒤 남편도 옷을 훌훌 벗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치 애로영화를 찍듯이 2인용 욕조에서 수시로 체위(?)를 바꿔가며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애를 낳으려는 건지 애정행위를 위한 전 단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는데, 난생 처음 외국인의 분만 과정을 리얼하게 지켜보게 된 내 쪽이 오히려 당혹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나도 곧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수중 분만센터에는 조산사 1명, 조산 보조원 1명과 재신타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지역 신문 사진사 1명, 그리고 산전 교육 선생까지 속속 도착했다. 특히 산전교육을 담당했던 아름다운 여성(30대 중반 정도의)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줄곧 재신타 곁을 떠나지 않으며 온갖 좋은 말은 다 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너를 위한 날이야, 재신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축하해 주기 위해 이렇게 왔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절대 두려워 할 필요 없단다. 통증이 밀려오면 피하지 말고 그

냥 받아들여. 너는 너무 아름다운 여자야” 등등.

진통이 시작되면 병원에 달려가 모든 걸 의사에게 내 맡기고 여자 혼자 천형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가족은 물론 산전 교육을 해줬던 선생까지 달려와 같이 아파한다는 건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었다.

이들의 은밀한(?) 출산을 취재하기까지는 분만센터의 제니퍼 원장이 도움을 많이 주었다. 사전에 분만센터 측과 전자메일을 주고받을 땐 거창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더니 동양 남자 한 명이 조그만 카메라를 달랑 들고 나타난 모습에 처음엔 조금 실망하던 눈빛이 역력했었다. 그러나 진통이 잘 진행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지쳐있을 때 혼자 조용히 나가 중국레스토랑에서 10인분의 음식을 포장해 가져와 같이 나눠 먹은 뒤 그들은 쉽게 프라이버시의 벽을 허물어 주었다.

포틀랜드의 청명한 아침이 밝아왔다. 재신타와 남편은 이미 욕조 밖으로 나와 소파에 앉아 진통을 계속하고 있었다.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표정이었으나 아프다거나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창문에 참새 비슷한 새가 날아와 앉았다. 그녀는 진통의 와중에도 창문으로 다가가 새를 보며 웃었다. 18세 초산모의 이런 여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면 여유가 사라지겠지. 지금은 아마 그렇게 참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닐 거야. 아마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면 난리날 걸?’ 내심 본격적인 진



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재신타는 소리지르는 대신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분만센터 복도를 산책하기도 하고 이따금 복도의 난간에 기대어 남편의 마사지를 받기도 했다.

오후 3시. 재신타가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재신타의 표정이 자주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그녀의 입에선 소리 한마디 새어 나오질 않았다. 그녀는 물 속에 어머니를 기대고 앉아 이따금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곤 했다. 언제쯤이나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될 것인가. 48시간 진통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설마...

그런데, 갑자기 조산사가 눈짓을 보내왔다. 2~3분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진통도 안 하고 아기를 낳다니. 갑자기 「생명의 기적」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말 거짓말처럼 재신타는 자세를 앉은 자세로 고쳐 앉더니 마지막 힘을 주기 시작했다. 물 속을 들여다보니 어느새 아기머리가 거의 다 나와 있었다. 정말 이렇게 끝까지 신음소리 한 번 안내고 아기를 낳다니. 그것도 18세 초산모가.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다.

아기의 머리가 물 속으로 다 빠져 나오고 나서도 누구도 아기를 엄마의 몸에서 빼내려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기는 스스로 산도를 빠져 나와 능숙한 숨씨로 물 속으로 진입했다. 마치 우리가 물 속에서 잠수해서 수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산사는 아기를 건져 올려 산모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아기는 큰소리로 울지도 않았다. 누구하나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아기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조산사, 산전교육 선생, 부모, 남편 모두. 특히 진통기간 내내 곁에서 아픔을 같이했던 20살 어린 남편은 목이 메

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곳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10살 된 조산사의 딸과 이미 가슴이 메마른 필자밖에 없는 것 같았다. 오히려 이 점이 나를 몹시 슬프게 했지만.

놀라운 광경은 계속 이어졌다. 욕조 밖으로 나온 재신타는 간단한 샤워를 하고 미리 주문한 피자와 차가운 주스를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비로소 18살 소녀 티가 나는 여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소리를 하나도 안 지르던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리지른다고 아픈 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소리지르면 없는 힘만 빠질 것 같아서요.”

재신타는 피자 한판을 가뿐히 먹어 치우곤 아기를 곁에 누이고 남편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촬영기간 내내 계속해서 혁명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우리에게는 탄생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런 결심은 3개월 후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다. 무엇보다도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와 그의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물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았다. 최정원 씨가 최종적으로 수중분만을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했지만 일단 마음을 정한 후부터는 우리가 취재해 온 갖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으로 몸도 다졌다. 그녀에게서 출산에 대한 공포는 이미 찾아보기 어려웠고 아기를 만난다는 기대에 들떠있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수중분만을 맡아 줄 병원을 여러 곳을 접촉하고 비디오와 책자 등 관련 자료를 보내주며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던 중 한양대 박문일 교수의 승낙을 받았다. 한양대병원 분만실 한구석에 창고로 쓰던 방 하나를 개조해 수중분만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9월 21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모성건강



「생명의 기적」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몇 가지

「생명의 기적」은 기존의 다큐멘터리에서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접근이 있다. '이러한 것이 좋다...' 라는 정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과정을 프로그램의 큰 줄기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 중의 하나가 수중분만을 처음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또한, 출산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4명의 실제 산모의 분만 과정을 프로그램의 중심 축으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모험이었다.

또 다른 한가지는 두 달 정도 걸려 완성한 3차원 컴퓨터 그래픽과 태아의 자궁내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특수 모형이다. 3D와 특수 영상 장비인 에디트 박스(Edit Box)를 이용, 정자의 이동, 정자와 난자의 결합 등을 보여줄 컴퓨터 그래픽은 SBS아트텍 한상권 씨의 작품. 또한 SBS아트텍 김재성 씨는 자궁 내 태아의 모습을 특수 제작하여, 사실감을 더했다. 시행착오와 예산 부족, 시간부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은 텔레비전 미술 부문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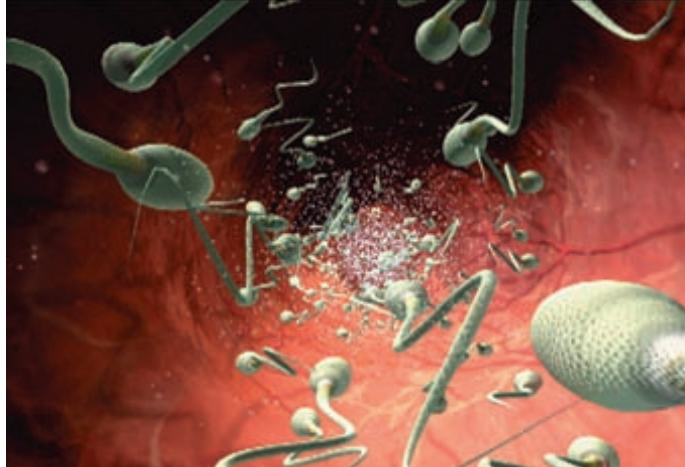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미술 분야를 잘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방송에 꼭 쓸 것을 미리 정리해야 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기껏 만들어 놔는데 나중에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와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가 수중분만으로 건강한 딸을 출산한 것이다.

수중분만은 단순히 분만방법상의 이색적인 분만법이 아니다. 「생명의 기적」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분만방법의 특이함보다 그 이면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회복이다.

수중분만에는 누군가 육조에 같이 들어가 산모를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 함께 이 극적인 탄생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산모에게 분만 촉진제도, 진통제도 놓지 않으며 회음부 절개도 하지 않는다. 아기는 충격 없이 양수에서 양수와 같은 온도의 물로 나와 부드럽게 세상과의 첫 접촉을 할 것이고 엄마 품에 안겨 오래도록 엄마와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같이한 가족,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기가 어찌 폭력적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런 자연 분만을 폭력 없는 분만(Birth without Violence)이라고도 하고 부드러운 분만(Gentle Birth)이라고도 부른다.

「생명의 기적」은 우리가 그 동안 소홀히 여겨온 탄생문화의 허(虛)를 밝혀보고자 기획된 것이다.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인간적인 관계에 소홀히 하는 나라에서 인간성 회



복과 인간관계를 회복해야한다고 부르짖는 것이다.

태아에 대한 애정과 그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면 21세기 초 제왕절개 출산률이 50퍼센트를 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 아기들의 반이 엄마의 아기사랑과 인격형성에 필수적인 진통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술용 칼로 모체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SBS**

글/박정훈 · 「생명의 기적」 프로듀서, 사진/조광희

영상문화 시대, 우리 영화 지킴이

「접속! 무비월드」

기획/박희철, 김형욱, 연출/정상일, 김문배, 제작/미디어 텐, Y&B
진행/장진, 김민, 일요일 낮 12시 10분 방송

한 국 영화의 시장점유율 40퍼센트! 미국 영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할리우드의 상업 영화들이 홍수를 이루는 세계 영화 시장에서 자국 영화가 40퍼센트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이다. 물론 정부가 앞장서서 계몽 영화들을 쏟아내는 인도는 별도로 쳐야겠고, 어쨌든 스크린 쿼터라는 얇은 방패막 하나 가지고 할리우드 영화의 침입을 60퍼센트대로 막아낸 것은 정말 대견한 일임엔 틀림없다.

「접속! 무비월드」가 태어난 것은 지난 4월. 우리 영화들이 상승무드를 탈 때였다. 97년의 「접속」, 「넘버 3」, 98년의 「여고괴담」, 「정사」. 그리고 99년 초 결정적으로 「쉬

리」가 대박을 터뜨렸다. 이때 「접속! 무비월드」의 탄생 일성은 '한국 영화 보급에 앞장서서 한국의 영화산업,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30여 회의 '한국 영화 보급에 앞장설' 기회를 가졌던 「접속! 무비월드」. 그러니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 40퍼센트대 진입' 이라는 뉴스가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쉬리」에서부터 「태양은 없다」, 「주유소 습격사건」, 「텔미 섬씽」, 「세기말」, 「해피엔드」 까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영화는 그야말로 불이 붙었고, 더불어 「접속! 무비월드」도 신이 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다. 매 회마다 소개하고, 분석하고, 또 보여줘도 순서





「접속! 무비월드」의 출발은 다분히 모험적이었다. 그러나 제작팀은 뜻을 굽히지 않고 프로그램의 반 정도 시간을 한국 영화에 할애하며 한국 영화에 의한, 한국 영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를 기다리는 우리 영화가 끝도 없었다.

현재 「접속! 무비월드」가 방송되는 일요일 12시 10분은 기존의 타 방송사 영화 프로그램이 6년째 아성을 지키고 있는 시간대이다. 「접속! 무비월드」의 출발은 다분히 모험적이었다. 당시 영화 프로그램으로서의 독보적이었던 프로그램과의 경쟁. 다소 불리한(당시로서는 불리할 게 뻔했던) '한국 영화' 카드. 그러나 제작팀은 뜻을 굽히지 않고 프로그램의 반 정도 시간을 한국 영화에 할애하며 한국 영화에 의한, 한국 영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내용에 있어서 처음부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의 주 진행자, 코너 진행자에 이르기까지 「접속! 무비월드」는 새로운 시도의 연속이었다. 진행자에는 「간첩 리철진」의 다재다능한 감독 장진, 영화 배우와 텔런트로 막 떠오르는 섯별 김민. 그리고 코너 진행에는 코믹한 영화소개로 새로운 장기를 드러낸 윤기원과 홍석천, 탁월한 진행습씨로 차세대 대표 진행자를 예감케 하는 최윤영 등. 이들의 기용은 그야말로 하나의 발견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간판으로 '5분의 법칙', '박대박', '테마록', '스타파일' 같은 코너들이 탄생했다.

영화 첫머리 5분의 내용을 통해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타일을 연구하는 '5분의 법칙'은 영화론에서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이론 중의 하나. 통신상의 반응도 좋아서, 제작팀은 이 코너를 통해 '장사모(장진 감독을 사랑하는 모임)'의 존재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게 맨 윤기원, 귀여운 남자 홍석천이 최고의 영화를 겨루는 '박대박'. 최근의 문제작들을 분석하는 '테마록', 국내외 배우들의 필모그래피와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스타파일'. 이 외에 국내 영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하는 '접속! 영화의 현장'도 다른 영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접속! 무비월드'만의 색깔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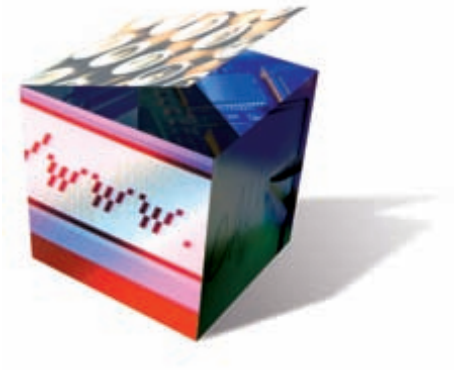
한 회의 방송을 준비하는 데는 꼬박 2주일의 시간이 걸린다. 각 영화사에 연락해서 영화의 진행 과정을 체크하고, 시사회에 참석해서 될성부른 영화를 점검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영화들에 대해서는 7~8분 내외의 엑기스를 뽑아내기 위해 회의하고 구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접속! 무비월드」가 탄생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영화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차 영화 시장 개방으로 일본 영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세기말을 소리 높여 노래했던 영화들은 다시 새 천년의 풍경을 담느라 분주해 질 것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시청자들과의 접속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접속! 무비월드」 제작팀도 더불어 바빠질 것이다. **SBS**

글/이영옥 · 「접속! 무비월드」 작가, 사진/서창식

밀레니엄 특집

Special for Millennium



새 천년의 뜨거운 해가 솟았다. 앞으로의 천 년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분명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와 도전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밀레니엄 특집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특파원을 통해 세계 각국의 새해를 맞는 표정을 살펴보고 새 천년에 SBS 프로그램 각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방송인들의 포부와 각오를 들어본다.

I 2000년 세계의 표정

II 2000을 말한다



넓은 성조기에 담긴 참 뜻

사 상 최대의 크리스마스 쇼핑 매출, 온라인 쇼핑 주문 폭주에 따른 우편물 적체, 연말 연시 항공권 매진... 1900년 대를 마감하는 세밀을 장식하는 미국 언론의 제목들이다.

사상 최대의 호황 - 미국은 금세기, 아니 건국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뉴욕의 다우 존스 공업지수는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고도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물가는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서 사상 최저의 실업률 속에서 정보화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직장인들의 주머니는 두둑하기만 하다. 이렇다보니 뭔가 회색빛을 떨 범한 '세기말'이 적어도 이 순간 미국에서 만큼은 장밋빛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미국에는 이런 낙관과 자신감이 흐른다. 다양한 밀레니엄 행사들은 이런 자신감을 반추하는 자리다. 그러나 결코 자족감을 분출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백악관 밀레니엄 위원회는 '위대한 미국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지는 것'을 밀레니엄 주제로 삼았다.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오래된 성조기'의 보존은 이 위원회가 정한 대표적인 밀레니엄 사업이다.

길이 10미터, 폭 9미터나 되는 이 커다란 성조기는 1813년에 만들어져 이제 187세. 수를 놓아 만든 푸른 별과 붉은 띠는 닳고 해져서 점차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원래 이 깃발은 워싱턴 북쪽 항구도시 볼티모어 입구에 있는 '맥 헨리'라는 해안 기지에 게양돼 있었다.

당시 영국은 과거 식민지 미국을 수시로 침략해왔다. 1814년에는 워싱턴 시내에까지 쳐들어와 백악관을 불사르고 많은 사람을 붙잡아갔다. 영국군의 다음 목표는 볼티모어. 영국 해군은 볼티모어 항 어귀 '맥 헨리' 기지에 대대적인 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워싱턴에 살던 '조지 스캇 키'라는 한 젊은 변호사는 포로로 잡힌 고향사람들을 구하려고 영국 군함으로 찾았지만 석방교섭에는 실패한 채 밤새 맥 헨리 기지를 향해 쏟아 붓는 영국군함의 포격을 좌절감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낮같이 밝았던 그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텅을 때 조지 스캇 키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 펼쳐졌다. 초토화된 줄 알았던 맥 헨리 기지에 어김없이 대형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기가 질린 영국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포로를 내준 채 영국으로 퇴각했다.

조지 스캇 키는 그때 그 감격을 그 자리에서 시로 읊었고 이 시는 오늘날 미국 국가의 가사가 됐다. 미국인들은 국가적인 각종 기념행사뿐 아니라 프로 야구 경기 시작 전에도 늘 맥 헨리 성조기의 사연이 담긴 국가를 목청껏 부르면서 역경을 딛고 위대한 미국을 일군 미국의 정신을 되새긴다.

미국인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넓은 이 성조기의 보존을 밀레니엄 사업의 핵심으로 삼은 뜻은 바로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담은 이 국기를 후손에 전해주기 위함이다.

S
P
e
c
i
a
l
f
o
r
M
i
l
l
e
n
i
u
m



S
P
e
c
i
a
l
f
o
r
M
i
l
l
e
n
n
i
u
m

현실적 계산이 앞선 새해 맞이

밀레니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탄생 천년을 뜻하는 밀레니엄은 실제로는 아주 애매 모호하다는 논란이 세모로 설레이는 일본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밀레니엄의 기원인 서기 1년에는 이미 예수가 4~6살이었다는 점. 그리고 서양 달력인 서력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525년이 되어야 처음으로 채택됐다는 점. 또 실제 천년 단위의 날짜 계산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기원전이라는 개념도 17세기야나 들어서야 정착됐다는 점들이 논거들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인 대부분이 기독교가 정신적 토양인 유럽 중심의 새 천년 맞이에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2000'이란 큼직한 광고문을 곁들인 밀레니엄 상품이나 각종 이벤트는 쇼바이(商賣)에 이끌린 일본인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지만, 사회 전체가 마냥 들떠있는 분위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이들은 천황제가 정착된 일본에서는 서력의 새 천년보다는 천황의 연호를 더 의미있는 시간 계산의 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풀이를 내놓고 있다. 오히려 구호로 충만한 새 천년 맞이보다는 당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보자는 극히 현실적인 계산이 앞서고 있다. 일본인들에게는 여객기 사고가 우려되는 Y2K문제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예년 같으면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들과 긴 휴가를 즐길 일본인들이지만 이번 연말연시 만큼은 그야말로 천 년에 한번 찾아올 비상근무를 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각 정부부처, JR같은 교통기관, 항공사, 컴퓨터 관련회사 등 전국적으로 무려 100만 명이 뜬 눈으로 새해를 맞는다.

이같은 잔잔한 세밀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매우 구체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국정 방향을 뚜렷이 알려주는 자상함을 보였다.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전자통신과 환경시대 개막을 알려주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1,20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도 이미 반영시켜 놓았다. 우선 모든 각급 공립학교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둘째, 종이 없이도 모든 행정수속이 가능한 '전자 정부' 실현도 계획했다. 연료 전지 개발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과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대책을 위한 기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각종 계획도 준비했다. 2004년까지 치매 환자는 20퍼센트 줄이고, 암환자의 생존률을 20퍼센트 높이기 위해 신약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2005년까지 쓰레기 재활용율을 올려 음식물 80퍼센트, 폐전자재 90퍼센트, 전기제품 80퍼센트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현실적이면서도 꼼꼼히 미래를 준비하는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새 천년 맞이이다.

지난 천년 좁은 바다를 두고 애증과 갈등의 틀에서 함께 살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이 새 천년 우리에게 어떤 이웃으로 다가올 지 눈 크게 뜨고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지켜볼 일이다.



S
P
E
C
I
A
L
F
O
R
M
I
L
E
N
I
U
M

두 얼굴의 밀레니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밀레니엄을 맞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프랑스인들이 자랑하는 샹젤리제에 파리시 밀레니엄 행사의 중심이다. 오벨리스크가 있는 콩포르드 광장에 설치된 초대형 수레바퀴와 함께 샹젤리제 거리에 가설된 11개의 대형 수레바퀴들이 12월 31일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구르기 시작하면서 새 천년 행사는 시작된다.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될 100만여 명의 인파는 서로 삼폐인 잔을 치켜들고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된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에도 지구촌 가족들에게 새 밀레니엄을 시각적으로 각인시켜 줄 초대형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에펠탑의 대형 전광판은 12월 31일 1000년대 마지막의 시, 분, 초를 나타내게 된다. 에펠탑 부근에 모인 인파들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전광판의 숫자가 0으로 바뀌는 순간 327미터 높이의 에펠탑은 내부에 2만 개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면서 서서히 이륙하는 모습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주변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가 밤 하늘을 수놓는 광경이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새 밀레니엄의 탄생을 축하하게 된다.

영국도 최근 축구장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초대형 밀레니엄 돐을 개장하고 런던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런던 아이(LONDON EYE)'를 템스강에 세우는 등 밀레니엄 열기로 뒤덮여 있고 독일도 두 달 전에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는 등 새 천년의 중심이 되기 위한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야말로 대륙 전체가 밀레니엄의 열기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이 이처럼 밀레니엄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난 세기에 미국에 내준 세계사의 주역이라는 영광된 자리를 새 밀레니엄에는 되찾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노력은 벌써 가시적인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2002년 7월부터 유럽연합회원국에서는 기존의 화폐가 자취를 감추고 유로화라는 이름의 단일화폐가 공통의 화폐로 사용된다. 경제통합을 이뤄 미국, 일본 등을 추월하자는 게 유럽인들의 야심이다.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EU회원국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EU정상회담은 2005년까지 5~6만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세기는 지난 세기 이상으로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주장한다. 다만 그 표현이 총과 칼 대신 경제와 정보화로 바뀔 뿐,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논리는 밀레니엄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5천년의 은둔에서 벗어나 세상에 얼굴을 내민 지 이제 겨우 100여 년 밖에 안 되는 온실 속의 한국이 유럽의 화려한 밀레니엄 행사 뒤에 가려져 있는 이들의 진정된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고 대비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SBS**

“3, 5, 7, 10…”

S p e c i a l f o r M i l l e n n i u m



다 사다난(多事多難). 뉴스와 더불어, 그것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나에게 이 단어는 신년 연하장의 미사여구 쓰임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입사해서 다음해 수습기자 딱지를 떼자마자 삼풍백화점 잔해 속에서 생사 갈림을 목격해야 했고, 세상을 뒤흔들던 두 전직 대통령이 무궁화와 봉황이 아로 새겨진 용상 대신에 법정의 딱딱한 나무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도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모두 남의 얘기였다.

강드쉬가 식민통치 계약을 맺으려 공황을 들어설 때만 해도 전혀 몰랐던 IMF 귀신이 서울역 지하도를 노숙자로 가득 채우고 우리네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생이별을 강요하는 것을 봤을 때 비로소 그것은 내 얘기였고 내 이웃의 얘기였다.

바로 그맘때쯤이었다. 친한 선배가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내뱉듯이 던진 말이 하나 있었다. “3,5,7,10…, 기자라면 입사 후 3년과 5년, 그리고 7년

과 10년이 되는 해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이였다.

입사 후 3년까지 나의 고민은 ‘무엇을’ 이었다. 기자가 되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 가운데 기사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기사가 안된다고 뭉개버린 사건들이 다른 언론사에 의해 대서특필 됐을 때 기자들은 흔히 “물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물을 먹게 되면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는 삭막한 분위기에서 기자들은 막말로 눈을 까뒤집어 가면서 기사가 될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

한 3년 이 치열한 경쟁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 때쯤부터 나의 고민은 ‘무엇을’ 에서 ‘어떻게’ 로 바뀌게 되었다. ‘어떻게’ 제작하고 편집해야 기사의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방송제작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지만 반대로 기사의 강도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얇은 피를 발동하기도 했다. 약간의 과장을 붙여넣는 것, 기자들 용어로 ‘초를 친다’ 라고도 하는데 다소의 과장을 통해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 소재라도 그럴듯한 대박 기사로 변모하게 된다.

이제 2000년, 입사 7년차… 앞서 모 선배가 얘기했던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지난해부터인가 난 기자로서 내 일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쓴 기사 한 줄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이 그 고통을 함께 해야 하고, 나아가 법과 제도가 뒤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는데도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내가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앞으로 난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한 질문에 답함이 없이 ‘무엇을’ 취재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한다면 기사에 초를 치는 것에 대해 한 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던 어리석음을 반복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큰 일, 작은 일 모두 다 감사하게

S p e c i a l f o r M i l l e n n i u m

드

디어 새해를 맞았다. 아니, 새 천년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더 크겠지.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내고 맞는 새 천년이라 내 기분도 남다르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나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다.

몸도 마음도 모두 바빴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IMF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배역을 맡아 방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순풍산부인과」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날마다 행복해」에서 주인공까지 맡을 수 있어서 지난해는 내게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되었다.

크고 작건 간에 일이 많았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일에 대한 소중함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 일일드라마를 두 편이나 하다 보니 바빴기도 하고 몸이 힘들어 건강 상태도 많이 나빠졌었다. 그래서 그 핑계로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올해에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단든지 욕심을 내는 연기는 없다. 오는 3월까지 두 드라마에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엔 선한 역이든 악한 역이든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고 싶다. 특히 정신병자 같은 강한 캐릭터라면 더욱 열심히 해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느라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새 천년엔 잠깐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원없이 영화도 보고 특히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 친구들과 만나 수도도 떨어보고 싶고... 그저 시간적인 여유만 주어진다면 감사할 것 같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오직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려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와 행복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란다.



새 천년에도 평상의 마음 가짐으로

S p e c i a l f o r M i l l e n n i u m

여러분! 2000년도는 정말로 환상입니다. 새 천년에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냐구요? 자! 달력을 한번 펴 보시죠.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이 모두 평일이나 토요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정도 토요일, 설날도 토요일. 단 하루의 공휴일도 일요일과 겹치지 않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해입니다. (항상 새 달력을 받을 때마다 공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1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본 것.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라도 발견되면 가슴을 치며 슬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다시 법정 휴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한글날도 월요일입니다. 비록 이 휴일들을 반납할 일이 많다고 해도, 다 쓸 수 없는 방송인의 운명이라 해도 이것은 분명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쉬는 날이 많은 새 천년엔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거창한 계획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보다 보통 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조용하게 경건하게 맞고 싶습니다.

계획이란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이라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수영을 올해도 꾸준히 배워서 접영까지 완벽하게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때부터 이루지 못했던 남편과의 해외 여행을 꼭 이를 겁니다. 남태평양의 섬도 좋고 브라질, 유럽도 좋습니다. 눈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정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음... 그 다음으로는 저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겁니다. 지난번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 만들어 봤는데 홈페이지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개성도 없고 초라한 것 같아서 올해에는 제대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제작이 끝나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이 세 가지가 제가 계획한 새 천년의 숙제입니다. 지금은 어떤 변화를 느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났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제가 가치있는 한 해를 보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천년의 프로듀서로 살아가기

S p e c i a l f o r M i l l e n n i u m

골 프에 취미가 없고 지금껏 주식 투자 한번 해본 적 없이 새 천년시대를 맞는 프로듀서로서 나는 나름대로 골들이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

그 첫째가 소위 요즘 '잘 나가는' 대중문화 현상들에 대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스스로 즐기며 참여관찰하기이다.

프로듀서가 한껏한껏 정성들여 현장 연출에 신경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자기 방식대로 문화를 즐기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눈이 먼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PC 게임에서 나의 참여관찰은, 몇 해 전 「삼국지」게임에서 천하통일 후 마침내 제갈공명이 대재상이 되었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감격을 맛보는 것으로 시작했다.(이것은 몇 달이나 날 밤을 새 본 게이머만이 공감할 수 있음) 그후 현존하는 최고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코만도스」와 「레인보우 식스」 등등으로 나의 PC게임 순례는 계속되었다.

이처럼 '잘 나가는'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그것들이 가진 '문법'을 터득하고 나아가 성공매력의 핵심 '코드'를 어렵פות하게 짚어나가는 수고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예능영역에서조차도) 우선적으로 송상되었던 '엄숙한 그것', '고상한 무엇' 보다는 '해악 없는 가벼움'을 주저없이 전면내내세웠고, 내용 충만한 '메시지' 타입이 아닌 느낌으로 다가가는 '이미지' 타입 위주로 프로그램을 포장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최대한 '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특히 「멋진 만남」 같이 공개로 녹화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녹화 당일의 '기' 발산은 너무나 중요하다. 녹화 전에 스태프들과 미팅할 때 가능한 서로 좋은 '기'를 나누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연기자들과는 연습할 때부터 가능한 그들의 눈빛까지도 살펴서 심리상태를 읽을 수 있는 섬세함과 친밀도가 요구된다. 이제까지 경험으로 이 돈도 들지 않는 '기' 활성화 기법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니 다른 어떤 것 보다도 큰 도움을 준다고 확신한다.

1999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보거스 PD'라는 별명을 얻었다. 보거스 PD라는 존재는 「멋진 만남」속의 한 출연자처럼 적절히 활용되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불려지기를 즐기는 편이다. 하지만 2000년에는 그 이미지로만 결코 안주하지 않을 작정이다. 프로듀서로서 새로운 그 무엇을 향해 늘 변신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별명이 하나 생겼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멋진 만남」에서 진행중인 또 하나의 문화적 실험, 즉 '잘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의 요소들이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같은 무선통신 서비스에서도 인기있는 콘텐츠로 가공되는 이벤트 사업들이 거두는 성과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SBS**





강렬한 눈빛과 터프한 역할로 데뷔 초부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준
탤런트 장혁. 95년 SBS드라마 「모델」로 데뷔해
「학교」, 「햇빛 속으로」, 그리고 영화 「짱」에서
일찌감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그는 「레즈비」,
「삼성 애니콜」 등 다수의 CF에서도 모습을 보여
벌써부터 인기 대열의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
현재 「왕룡의 대지」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그는 보기보다는 사교성도 있고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졌다. 자신을 타고 난 연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그의 가장 큰 장점. 얼마 전에는 발음교정을 위해
볼펜을 입에 물고 다녀 입이 다 헐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스타보다는 진정한 배우를 꿈꾼다는
장혁. 그 꿈을 위한 그의 행보를 주시해 본다.

사진/김연식

장혁





COVER STORY

삶이 묻어나는 뉴스를 꿈꾼다

주말 「SBS 8 뉴스」 **고희경** 앵커

어느 날, 고희경 앵커 앞으로 전자우편 한 통이 배달된다.

“처음 주말 8시 뉴스에 출연할 때는 참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꾸미지 않는 외모,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보여지는 자기의식에 대한 표출이나 연예인 같기도 한 요즘 앵커에 대해 반감을 갖는 시청자에게 크게 어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즘은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좋게 보이는 노력이겠으나 많은 사람들은 예전 고희경 앵커의 모습과 뉴스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고희경 앵커는 잠시 난감해 한다. 막무가내의 칭찬이 그녀를 신나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한 시청자의 따끔한 편지는 그녀를 잠시 잠깐 난감하게도 한다. 그녀는 찬찬히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지난 1년 반 동안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그랬다. 스스로도 결코 잘했다고만은 평가할 수 없는 구석들이 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까지 왔을 뿐이라고 밖에 달리 답할 재간이 그녀에겐 없다.

남의 앞에 선다는 일이 그랬다. 그것이 애정이 됐건 꼬투리를 잡는 의미가 됐건간에 많은 소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일단의 그런 '소리' 들이 싫었던 적도, 버거웠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솔한 시선과 기대로부터 당당해져야 할 때, 지금은 일을 일로서 풀지 않고 생활로 풀어야 할 때이다.

당찬 근성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

SBS 개국과 함께 보도국에 입사한 고희경 앵커는 사회부에서 두 달간의 수습을 거친 뒤 바로 경제부로 투입이 되어 현재 경제부 기자로, 또 SBS 주말 뉴스의 앵커로 뛰고 있다. 그녀가 처음 뉴스를 진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다. “어? 아나운서인줄 알았는데 기자가 뉴스를 진행하네?” 평일 뉴스에서도 얼굴을 내미는 그녀가 앵커석에 앉은 모습은 누가 보아도 신뢰가는 모습이었을테고 그랬기에 참신함이 돋보였을 것이다. 당찬 근성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나 있는 그녀의 기사는 믿음직스런 SBS 뉴스 만들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지금



당찬 근성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나 있는 고희경
기자의 기사는 믿음직스런
SBS 뉴스 만들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지금은 뉴스 스튜디오와
취재 현장과의 맥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그녀의 바람은
연륜의 무게로 삶이 묻어나는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은 뉴스 스튜디오와 취재 현장과의 맥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저의 모습은 단지 과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해요. 한 10년쯤 기자 생활에 익숙해진 다음 뉴스를 진행한다면 분명 다를 수 있을테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0년이란 세월이 모자를 지도 모르죠. 그래서 조금은 나이가 지긋해져서, 조금은 세상을 알만한 나이가 되는 50살 즈음에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전달해 주는 앵커가 되는 꿈이 저에게는 있어요. 제 연륜의 무게로 삶이 묻어나는 뉴스를 진행하는 거, 그 모습은 생각만 해도 참 괜찮지 않겠어요?”

“사람 안에 문제 있고 사람 안에 답이 있다”

바삐 살아가다 보면 삶의 지체도 삶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 그녀. 그래서 자신을 가만히 내버

술자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데는 분명한 ‘재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목욕한 기분이 된다. 그리고 그 목욕을 통해 당분간은 어떠한 스트레스라도 그녀를 괴롭히거나 그녀를 조롱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다.

모든 운동이 그런 것처럼 방송 또한 힘주는 것 보다 힘 빼는 것이라고 믿는 그녀는 요즘 힘 빼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다.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저는 먼저 안방을 떠올려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함부로 흐트리 놓을 수 없는 안락함이 있는 그런 안방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편안함을 요리하는 사람이 되어 안방을 향해 앉는 거죠. 안방에는 학생 신분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또 저의 어머니님 같은 분도 앉아 계실테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방이라는 공간에 충실할 수



려두지 않는다는 것이 좋아 기꺼이 기자라는 직업을 택했고 뒤를 돌아봐도 단 한순간의 후회가 없었다는 그녀. 그녀에겐 6시와 8시 사이에 편집을 하고 더빙을 하면서 얻는 긴장이 그렇게나 달콤할 수가 없다. 그 전쟁처럼 치러지는 하루 하루를 달콤함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물론 그녀만이 느끼는 일에 대한 성취감일 것이다. 하나의 기사가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정보이자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의 기사로 이 사회의 바퀴가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그녀를 성취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그녀가 술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사람공부가 부족해서라고 믿기 때문이다. 늘상 사람 안에 문제가 있지만 또 사람 안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그녀는 술자리에서 터득하려 하고 있다. 사람 안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는 일, 그 작업들이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있는 뉴스를 배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경지에 올라야 편안함도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돈을 다운시키는 연습을 하곤 해요.”

이제는 희망을 실천할 때

그녀의 나이는 이제, 서른하고도 하나. 그녀의 나이는 이제, 붉은 꽃 다음에 오는 열매를 잉태해야 할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나이를 겪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지난 한 해 그녀가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이제 그녀는 그 희망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녀에게 흰 도화지 한 장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녀는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 채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것만 같다. **SBS**

프로근성으로 무장한 방송의 최첨병

SBS 관리본부 송신소

“송신소는 한마디로 방송의 최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은 이곳 송신 시스템을 거쳐야 비로소 안방의 텔레비전으로 전파되니까요.”

송신소의 역할을 설명하는 변장부 소장의 목소리에 유난히 힘이 실려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촬영 현장에서 녹화 혹은 생방송으로 제작한 방송 내용은 송신소의 부조정실에서 테이프를 녹화되고, 주조정실에서는 이를 컴퓨터로 송출시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장치를 통해 무선 프로그램으로 송신한다. 그리고 이는 송신시스템을 거쳐 안테나를 통해 전파로 발사시킨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방송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라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국 송신소는 ‘방송’을 현실의 그것으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앞아서 천리 길을 본다

일반인에게 인식되는 ‘방송’이란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오면 ‘방송’이란 손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이 된다. 송신소 사무실 천장에 연결 연결돼 있는 구릿빛 파이프가 그 열쇠다. 방송 내용을 전달하는 게 지름 20센티미터쯤 되는 파이프라니. 순간, 그 파이프의 내부 구조가 궁금해졌다.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어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속엔 아무 것도 없었다. 전파는 그저 뽕 뚫린 그 파이프 내부면을 따라 전달된다.

물론 SBS 송신소가 남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최고 수준의 수신율을 갖추기 위해 관악산 송신소와 용문산 송신소, 고양 송신소를 운영 중이며 그 외 성남, 인천 등에 8개의 간이 중계소도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송신소와 중계소의 모든 상황들은 남산 송신소에서 무인 원격제어한다. 이 무인 원격제어 시스템이 다른 방송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명의 인원으로 송신시설 전체 운영과 유지보수를 가능케 하는 셈.

그래서 송신소 조정실의 모니터 화면은 일년 365일 쉼 없이 돌아간다. 매순간 방송 내용을 모니터하다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조절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보수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해결한다.

“본 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5시쯤이 되면 우리는 초긴장 상태가 되죠. 모니터 화면 주시하라, 각 송신소의 상황 분석하라. 정말 그 시간이 되면 목이 바짝바짝 타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가도 아무 탈없이 하루 방송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나 싶게 긴장이 말끔히 가신다는 강동하 차장. 갑자기 죄스런 마음이 된다. 항상 그 자리에 있기에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공기처럼 언제나 파워(power) 버튼만 누르면 방영되는 줄로만 여겼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위해 그 누군가는 가슴을 졸이며 순간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탓이다.

방송을 두 손에 쥔 사나이들

이들은 스스로를 외인부대라 칭한다. 세상과 접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기에, 하루 24시간 꼬박 근무하고 집에

저마다 독특한 색깔을 지닌 송신소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의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다. 바로 철저한
 장인정신, 프로정신이 그것이다.
 각자의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프로정신이야말로 이들이 빛어내는
 송신소의 진정한 '개성'이다.



돌아가면 모자란 잠을 채우기도 바쁘니 그렇고, 또 하루 세 끼 모두 사무실 안에서 해결하니 일부러 바깥 세상 구경할 짬이 없어서도 그렇다.

그렇다고 사무실 분위기가 삭막할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2명의 툭툭 튀는 개성만으로도 충분히 활기가 넘치기 때문이다.

외인부대의 최고 사령관인 변장부 소장은 한 번 목표를 설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밀어 부치는 성격의 소유자. 부사령관인 석정수 부장은 웬만한 차량 고장은 손수 해결하는 탓에 마이다스의 손으로 통한다. 늘 걸어서 남산을 오른다는 강동하 차장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무인중계소 점검을 위해 산을 오를 때 뛰어난 등산실력을 뽐낸

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마음 고생하는 이가 있다면 이태규 차장을 찾아가 볼 일이다. 그 방면에 탁월한 비법을 지녔단다. 봉봉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박내봉 차장은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담배 한 대 피워 물 줄 이는 여유과. 사무실 내 카운셀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박창식 차장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외에도 고양 송신소의 150미터 철탑도 단숨에 오르 내리는 고지철탑의 일인자 김택영 씨, 낚시면 낚시, 바둑이면 바둑, 음주면 음주 못 하는 게 없는 남석우 씨, 송신소 내 허드렛일을 자청하는 만능 일꾼 양성구 씨도 눈에 띄는 개성파다.

이처럼 저마다 독특한 색깔을 지닌 이들이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의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다. 바로 철저한 장인정신, 프로정신이 그것이다. 각자의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프로정신이야말로 이들 22명이 빚어내는 송신소의 진정한 '개성' 일 터이다.

창의력과 도전정신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해요. 91년 11월 7일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남산 송신소에 SBS가 처음 시설을 갖추는 날이었거든요. 2주쯤 전부터는 아예 철야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그날도 우리는 차가운 가을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철탑에 올라가 마무리 공사에 여념이 없었어요. 시험방송 시각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죠.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구요. 어찌어찌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머리에 물기도 털지 못한 채 사무실로 와 보니 회장님께서 막 도착하셨더군요. 결국 성공적으로 시험방송을 끝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는 SBS 방송기술부문 공채 1기 김성훈 씨. 그는 SBS와 함께 컸다. 그에게 방송이 삶의 전부이고 또 SBS가 그의 방송경험 전부이듯 그에게 SBS는 삶의 전부다. 아니, 비단 그뿐만이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SBS는 그런 존재다.

올해로 송신소에 근무한 지 20년이 된다는 박내봉 차장은 SBS에 오기 전 다른 방송사에서 근무했었다.

“SBS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물론 최첨단 장비죠.

타 방송사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젊다는 것 역시 SBS가 지닌 큰 장점입니다.”

그의 말대로 SBS는 젊다. 장비도, 또 그 장비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젊음이란 무언가.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과 창조정신의 또다른 이름이 아니겠는가.

사실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으로 꼽히는 디지털 텔레비전(DTV)의 운영면에서도 SBS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완벽한 DTV 시설을 갖춘 SBS는 2001년도 정규방송을 목표로 현재 시험방송 중이다. 물론 시험방송 성적은 매우 우수하다. SBS의 송신소 역시 DTV 방송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본적인 시스템 익히기는 물론보다 전문적인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밤낮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24시간 교대, 365일 비상대기... 결코 편안한 근무조건은 아닐 터. 그러나 이런 우려도 이들의 말 한 마디에 일축돼 버린다.

“설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나와서 일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우린, 잠 잘 때도 잠옷에 휴대폰 꽂고 잡니다.”

‘중단 없는 방송’을 위한 이들의 의지는 눈물겹다. 그래서 차라리 아름답다. **SBS**

글/이연영 · 자유기고가, 사진/김연식

제 2 회 T V 문 학 상 공 모

SBS문화재단에서는 SBS 창사 10주년 기념으로 완성도 높은 TV극본 확보와 유능한 신인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제2회 TV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총 7,0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공모의 당선작은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송되며, 당선자들은 SBS 전속 작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창작의 열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부문 및 내용

1. 픽션 부문(방송 극본)
60분 × 2부 (각 부별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의 줄거리 요약 첨부
소재, 주제 제한 없이 방송 가능한 순수 창작물
2. 논픽션 부문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 이상 무제한,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의 줄거리 요약 첨부
소재, 주제 제한 없음

◎ 공모 자격

신인 · 기성 구분없음

◎ 상금 : 총 7,000만 원

1. 픽션 부문(5,000만 원)
최우수상 : 2,000만 원(2,000만 원 × 1편)
우수상 : 3,000만 원(1,000만 원 × 3편)
2. 논픽션 부문(2,000만 원)
최우수상 : 1,000만 원(1,000만 원 × 1편)
우수상 : 1,000만 원(500만 원 × 2편)

◎ 일정

1. 접수 마감 : 2000년 4월 10일
2. 당선작 발표 : 2000년 5월 26일

◎ 접수처

(우)157-030 서울 강서구 등촌동 58-1
SBS문화재단 TV문학상 담당자

◎ 문의처

SBS문화재단 사무국 : 02)3660-1762
ARS : 02)369-2917



와일드 씽

원제/WILD THINGS

감독/존 맥노튼

주연/맷 딜런, 케빈 베이컨, 네이브 캠벨

방송/2000년 1월 7일 · 담당PD/김하정

모든 미국인들이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으로 꼽는 플로리다 블루메이. 그러나 한 쪽의 그림자는 해변에서 추적한 스캔들, 냉혹한 복수와 살인극이 펼쳐진다. 매력적인 성 문제 상담 교사 샘 로바르도(맷 딜런)는 자신을 흠모하는 두 제자 켈리(데니스 리처드), 수지(네이브 캠벨)와 싸고 거액의 위자료를 담보로 강간 소송을 벌인다. 그러나 과연 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강간한 것일까? 선생보다 더 교활한 두 제자는 자신들의 순결을 무기로 부모에 반항하고, 이들의 사기극은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데 수지가 실종되면서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c h a n n e l

데스퍼레이트

원제/DESPERATE MEASURES

감독/바베트 쉬르더

주연/앤디 가르시아, 마이클 키튼

방송/2000년 1월 14일 · 담당PD/송길우

샌프란시스코의 형사 프랭크 코너(앤디 가르시아)의 아홉 살 된 아들 매튜(조셀 크로스)는 백혈병으로 시한부 생명 판정을 받는다. 생명이 꺼져가는 매튜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골수이식을 받는 방법 뿐인데 매튜에게 골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증자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터 맥카브(마이클 키튼)임이 밝혀진다.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베테랑 형사와 교활하다 못해 악마적인 살인범의 쫓고 쫓기는 필사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이식 수술을 맞받은 매튜의 생명은 시시각각 사들여만 가는데...



6 c i n e m a



죽이는 이야기

감독/여균동

주연/문성근, 황신혜, 이경영

방송/2000. 1. 21 · 담당PD/김재영

잘 안 나가는 감독 구이도(문성근)는 여관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사 장면을 훑쳐보는 여관 종업원의 이야기를 통해 음란한 세상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잘만하면 흥행도 되고, 감독으로서의 입지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영화사 사장으로부터 OK 사인도 받았다. 사장의 정부인 삼류 여배우 말희(황신혜)를 주인공으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그 정도쯤이야 타협할 수 있다고 여기며 한껏 꿈에 부풀어 구이도 감독,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한다. 삼류 여배우를 점전하던 말희는 연기변신의 기회라며 절대로 벗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실상가상으로 또 다른 광패출신 남자배우 하비(이경영)는 액션이 빠질 수 있느냐며 은근히 감독을 협박한다.

첩혈쌍웅

원제/THE KILLER

감독/오우삼

주연/주윤발, 염천문, 이수현

방송/2000년 1월 28일 · 담당PD/송길우

'영웅본색'이 홍콩 느와르의 시작이라면 이 영화는 그 완성작. 서극의 기획, 오우삼의 연출, 정소동의 액션지도는 굳이 영화의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화려하다.

존(주윤발)은 전문 킬러, 그는 임무를 수행함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지닌 인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트 클럽의 총격전 중 아름다운 기수 제니(염천문)의 눈을 멀게 만든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존은 제니를 불쌍히 여기다 급기야 사랑에 빠지고 제니의 눈을 뜨게 할 수술비 마련을 위해 마지막 임무 수행에 나선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존은 집요한 형사 리(이수현)의 표적이 되고 조직의 두목마저 존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존의 생명을 노린다. 궁지에 몰린 외로운 킬러 존, 그가 분노의 총을 뽑아든다.

「아름다운 세상 손속, 배기완입니다」

기획/전윤표, 연출/이영일, 진행/손숙·배기완, 매일 아침 9시 5분 방송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

구 랫 21일, 「아름다운 세상」은 탄생 100일을 맞았다. 100일 동안 「아름다운 세상」 식구들이 참 많이 늘었다.

먼저, 작년 9월 13일 첫 방송부터 두 달 동안 손숙 씨와 흔쾌히 짝이 되어준 7인의 남자들! 탤런트 권해효(월), 개그맨 전유성(화), 소설가 구효서(수), 아나운서 배기완(목), 연극배우 이정섭(금), 고려대 민용태 교수(토), 유자효 시인(일).

이 7인의 남자들은 각기 다른 빛깔로 「아름다운 세상」을 빛내 주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여섯 남자들을 물리치고(?) 손숙 씨를 차지한 행운의 남자는 목요일의 남자, 배기완 아나운서. 그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이 「아름다운 세상 손속, 배기완입니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의리가 있지. 전유성 씨와 이정섭 씨는 「아름다운 세상」 2부, 「여성 이 세상을 바꾼다」 고정 게스트로 계속 출연중이다.

2부 고정 게스트들도 너무나 소중한 「아름다운 세상」 식구들이다. '판결 하나가 세

상을 바꾼다'의 배금자 변호사, '인터넷, 손속도 전유성만큼 할 수 있다'의 컴퓨터 칼럼니스트 곽동수,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삶'의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전유성 씨는 월요일의 '잡동사니 행복론'으로 청취자들의 한 주를 행복하게 만들고, 요리 잘하는 남자 이정섭 씨는 금요일의 '맛있는 요리, 즐거운 인생'에서 주부들의 요리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고 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수요 초대석' 손님들도 빼놓





을 수 없다. 첫 손님 한국일보 장명수 사장, 디자이너 앙드레 김, 시인 박노해, 전 감사원장 한승헌 변호사, 새천년위원회 이어령 위원장, 국민가수 이미지, 신사 국회의원상을 받은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오지 여행가 한비아, 가수 이문세, 텔런트 김혜수... 또 추석 특집 생방송 때 기꺼이 출연해준 패티김, 설운도, 박정자, 윤소정 씨도 「아름다운 세상」을 빛내준 손님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세상」 식구들이 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 코너에 소개되는 사람들이다. 하루에 한 사람씩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 매일매일 전화 연결하는 일,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은 별일 아니라며 사양한다.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아낸 뒤, 달래고, 사정하고, 협박하고, 애원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작팀 몫이다.

「아름다운 세상」 편지 쓰기 캠페인,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에 편지로 참여해준 분들도 「아름다운 세상」을 빛내주었다. 대학 은사인 미당 서정주 시인에게 편지를 띄운 문정희 시인, 철 지난 가을바다에서 법정 스님에게 편지를 띄운 동화 작가 정채봉,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 풀꽃 앞에서 있는 당신"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띄운 김용택 시인, 고이 간직한 이십대에 쓴 연애 편지를 보내준 정호승 시인, "부르면 눈물 먼저 나는 교통사고 당한 친구 승연에게" 편지를 띄운 방송인 허수경, 여성 학자 오

한숙희 씨는 "나의 동지이자 나의 동지인 엄마"에게 쓴 편지를 보내와 손숙 씨를 울렸다.

가수 조영남의 멋진 캐리커처와 함께 "조박사 기체만강 하신지요"로 시작되는 편지를 보내준 화가 이석조, 「오체불만족」의 주인공, 일본인 오토 다케군에게 편지를 띄운 이해인 수녀, "아버지 누워 계신 캘리포니아 그 땅과 하늘나라는 따뜻하고 편안하신가요?"로 시작되는 장문의 편지를 아픈 가운데도 밤새 울면서 써 보내준 연극배우 윤석화 씨.

그리고 박범신, 하일성, 오정해, 전여옥, 신달자, 김어준, 황주리, 이경자, 안도현, 이숙영, 혜진스님, 임옥상, 신현림, 은희경 씨 등등. 바쁜 가운데 편지 청탁에 기꺼이 응해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세상」 식구들은 매일매일 슬프고 다정하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보내 준 청취자 여러분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2000년 새해에도 새 식구들을 한명 한명 늘려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 이유는 가수 이정열 씨가 부른 「아름다운 세상」 로고송으로 대신한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편지 한 통이 세상을 바꿉니다. 쓰는 기쁨 보내는 즐거움 우리 모두 함께 해요!" **SBS**

글/전옥란 · 「아름다운 세상 손숙, 배기완입니다. 작가, 사진/조광희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기획/박동주, 연출/오지영, 진행/김미숙, 매일 아침 9시 방송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아침



봄

세상이 모두 정지해 버린 듯한 나른한 봄 날 아침, 시장 가신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소녀는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깜빡 잠이 든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흘러 그 소리를 따라간다. 노래 소리는 어느 집 창가에 매달려 있는 조그만 물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벽돌을 밟고 올라가 그 물건을 한참 동안 쳐다보던 소녀는 그만,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진다. 그 조그만 물건 안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딱 엄지공주만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꽃분홍 치마에 색동저고리, 땀기머리 곱게 내려 땀은 여자들이 부르는 나른한 노랫소리. “산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1999년 봄 날 아침, 이제 어른이 된 그 소녀를 만났다. 여의도 윤중로는 벚꽃으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차 한 잔 앞에 두고 부리는 그녀의 여유로움에 난 사치스러운 나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랬었다. 그녀와의 첫 만남에 나는 분명 우아한, 그래서 청취자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 그녀에 대한 선입견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하지만 어른이 된 그 소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라디오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을 법한 두근거림 그대로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여름

정말 맛있는 음식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혀가 기억해 낸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아름다운 이 아침」 사총사(DJ 김미숙, 작가 오미지, 한해아, PD 오지영)는 어느 아름다운 여름 날 아침, 곧바로 잊더라도 맛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핑계를 만들어 충무로 여행을 떠났다. 동이 틀때까지 밤새 떠들었던 맛있는 수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맛있는 수다가 있다.

모두가 거대한 것, 또 중앙으로 치닫기 위해 뛰어가지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자. 아름답고 작은 것을 꿈꾸자. 작은 개인에서 시작해서 살금살금 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해서 작고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불러모으자라는 것.(주의: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약도 없음)

가을

사람들은 말한다. 지구상에 새로운 건 없다고. 게다가 방송국에는... 과연 그럴까? 내가 사는 동네에선 여전히 새로운 소리가 들려온다. 난 아직 우리 동네에 대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기 시작한 늦가을 아침, 아름다운 이 아침 앞으로 전해지는 가을 편지가 어느 때보다 반갑고 살갑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가 보고 싶어 무작정 기차를 타고 상경한 영동의 어느 산골 마을, 일곱 살짜리 소녀의 이야기에 애가 타고, 새 엄마가 생기는 군인이 아버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군화 위로 떨구는 눈물 한 방울에 함께 가슴이 절절해진다. 이웃 동네에서 날아드는 소식에 「아름다운 이 아침」 가족들은 함께 가을을 탔다.

겨울

구랍 1일, 작고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3주년 기념콘서트 -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사람들」. 금세기 마지막 송년을 아름다운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

이제 어른이 된 그 소녀는 아름다운 이 아침의 가족들과 더욱 친숙해진 발걸음으로 네모난 상자 안에 다시 들어간다. 어디선가 처음 라디오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또 다른 소녀와의 설레이는 만남을 기다리며... Happy Millennium! **SBS**

글/오지영 ·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프로듀서, 사진/조광희

TV

MON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덩크슛! 알개들
11:35 축구왕 슛돌이
12:00 국악천년
12:05 방학특집 클릭! 인터넷 세상

TUE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덩크슛! 알개들
11:35 축구왕 슛돌이
12:00 국악천년
12:05 방학특집 클릭! 인터넷 세상

WED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덩크슛! 알개들
11:35 축구왕 슛돌이
12:00 국악천년
12:05 방학특집 클릭! 인터넷 세상



SBS

CHANNEL 6 2000년 1월 1일 현재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짱구는 못말려
6:15 메가레인저
6:45 행진
7:15 새 프로그램
8:00 SBS 8 뉴스
8:40 나팔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월화드라마 맛을 보여 드립니다
10:55 이홍렬 쇼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짱구는 못말려
6:15 메가레인저
6:45 행진
7:15 스타 쇼
8:00 SBS 8 뉴스
8:40 나팔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월화드라마 맛을 보여 드립니다
10:55 오늘과 내일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구슬동자
6:15 포켓 몬스터
6:45 행진
7:15 머리가 좋아지는 TV
8:00 SBS 8 뉴스
8:40 나팔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TV영화 러브스토리
10:55 김혜수 플러스 유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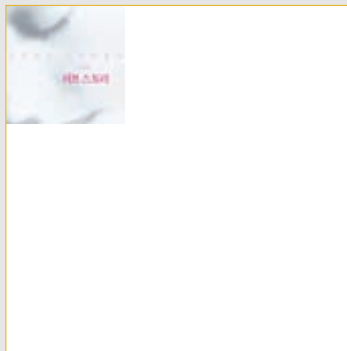
「그것이 알고싶다」, '99방송위원회 대상 수상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싶다-국군 포로 장무환, 50일간의 북한 탈출기」가 '99 방송위원회 대상을 수상했다.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싶다-국군 포로 장무환, 50일간의 북한 탈출기」는 생사를 걸고 북한 탈출을 감행한 한 국군 포로의 탈출기를 생생하게 취재, 방송하여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다.

TV영화 「러브스토리」 O.S.T.

TV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도입하여 아름다운 사



랑 이야기를 총 8개의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담아 방송하고 있는 「러브스토리」는 이번 겨울에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O.S.T. 역시, 기존의 드라마 O.S.T.와는 다른 느낌을 주도록 하여, 사랑을 테마로 한 주옥같은 16곡을 정성껏 담았다. 현재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 유영선 씨가 이번 음악을 총 담당하고 있는데, 사랑의 테마에 걸맞은 아름다운 음악을 염신하여 실었다.

또한 앨범 전체의 성향이 기존의 편집앨범과 O.S.T.와는 다르게 만들어져 새로운 신작 앨범같은 느낌을 주고, 주옥같은 곡을 리메이크한 팝은 또 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다.

THU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덩크슛! 알개들
11:35 슈퍼맨
12:00 국악천년
12:05 방학특집 클릭! 인터넷 세상

FRI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덩크슛! 알개들
11:35 슈퍼맨
12:00 국악천년
12:05 방학특집 클릭! 인터넷 세상

SAT

AM

6:00 토요일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토요일 스타클럽
10:00 생방송 행복찾기(1부)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SUN

AM

6:00 일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1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00 뉴스 추적
8:50 일요아침드라마 달콤한 신부
9:50 LA 아리랑
10:50 좋은 친구들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구슬동자
6:15 포켓 몬스터
6:45 행진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0 나팔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TV영화 러브스토리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창작 만화
6:15 카드캡터 체리
6:45 행진
7:15 이경삼, 이성미의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0 나팔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기분 좋은 밤
10:55 영화특급

AM

00:50 SBS 나이트라인
01:05 스포츠 와이드

PM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12:55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5 SBS 뉴스
4:55 순풍 산부인과 스페셜
5:50 기쁜 우리 토요일
7:00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주말극장 왕룡의 대지
9:50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10:50 그것이 알고싶다
11:50 SBS 골프

AM

00:50 SBS 나이트라인

PM

12:00 SBS 뉴스
12:10 접속! 무비 월드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5 SBS 뉴스
4:55 생방송 SBS 인기가요
5:50 호기심 천국
6:50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주말극장 왕룡의 대지
9:50 일요드라마 카이스트
10:50 임백천의 원더풀 투나잇

AM

00:10 일요 심야 극장
02:00 SBS 나이트라인

SBS문화재단과 중앙일보, 영화문학상 공모

SBS문화재단과 중앙일보는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3,000만 원의 상금을 내걸고 사나리오를 공모한다. 영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영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해 영화의 바탕이 되는 시나리오 분야의 유능한 인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SBS문화재단과 중앙일보는 한국 영화 중흥의 길을 열어 나갈 시나리오 작가들을 발굴·육성하자는 뜻에서 영화문학상을 제정했다.

· 응모 자격 : 기성·신인 모두 가능

-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200장 내외
- 응모 마감 : 2000년 3월 1일
- 당선작 발표 : 2000년 4월 25일
(중앙일보 지면과 SBS 방송)
- 보낼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SBS 프로덕션 영화문학상 담당자함

2000 SBS 청소년 스키·스노우보드 캠프

SBS프로덕션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유익한 방학생활을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겨울철 레저스포츠의 꽃인 '스키'와 최근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스노우보드'를 배우고 즐

길 수 있는 겨울캠프를 오는 2000년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경기도 이천시)에서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총 1,500명이다. 1기당 300명씩 5기로 나눠 캠프를 열게 된다. 접수 기간은 지난 12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캠프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감승 외에 DDR 콘테스트, 인기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SBS 파워FM 공개 방송, 드림페스티벌, 캠프라이어 등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좋은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참가문의 및 신청은 전화789-9595 또는 인터넷 www.sbs.co.kr로 할 수 있다.

표준

FM 103.5MHz
AM 792KHz



CHANNEL 6 2000년 1월 1일 현재

MON - SAT

AM

- 5:00 뉴스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SBS Good morning japanese
- 6:30 봉두완의 SBS 전망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봉두완의 SBS 전망대
- 8:30 노성태의 경제레이더
- 8:40 새 천년 명인에게 듣는다
- 8:55 공황정보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배기완입니다
- 11:05 순혁재의 세상 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정선희·김진수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김천식, 전여옥의 밀레니엄 정보 쇼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30 이성미, 지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염용석·유지현의 투나잇 쇼
- 9:30 김태욱의 스포츠 쇼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SBS PC 통신-아간비행
- 1:00 손승욱의 Cine Music Club
- 2:00 은지향의 Let the music play 1부
- 3:00 이재춘의 Let the music play 2부
- 4:00 변정원의 Sweet Music

월~토요일

-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SUN

AM

- 5:00 뉴스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SBS TEPS English-Let's go TEPS
- 8:05 한비아의 세계 풍물 기행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배기완입니다
- 11:05 조경철의 라디오 25시

PM

- 12:05 10시간 생방송
일요일음악여행 1·2·3·4부
- 4:05 일요일음악여행 5·6·7·8부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일요일음악여행 9·10부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SBS PC 통신-아간비행
- 1:00 손승욱의 Cine Music Club
- 2:00 은지향의 Let the music play 1부
- 3:00 이재춘의 Let the music play 2부
- 4:00 변정원의 Sweet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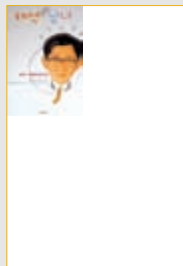


SBS TV와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엮은 책들이 발간되었다. 발간 초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들을 모았다.

「해석 안되는 남녀」

「남획석 이휘재의 멋진만남」 중 남녀의 심리를 알아보는 코너 「해석남녀」를 진행중인 이상일 박사(신경 정신과 전문의)가 「해석 안되는 남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남녀 심리와 연애 상식 등을 의학적, 심리적으로 접근한 이상일 박사는 인세 전액을 노인병 진료사업 및 예방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데이트 코스를 체험, 소개하는 「못말리는 데이트」 코너에 그 동안 소개되었던 전국의 명소들을 정리한 내용의 책도 2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빈 지갑을 채워주는 센스경제」

IMF 관리체제 이후 돈과 채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에서는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앞다퉈 신설하고 있다. SBS의 「머니센스」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경제문제를 알기 쉽고 맛깔스럽게 풀어나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고정 출연했던 사이버 경제학자 「나잘난 박사」는 최근 증권 부동산에 대한 촌평은 물론 그린벨트 해제부터 정책의 혼신까지 날카롭게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빈 지갑을 채워주는 센스경제」는 「머니센스」를 통해 방영됐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요일별로 방송됐던 센스투자, 센스일터, 센스 부동산, 센스리빙 등 분야별로 나눠 구성했다. 특히 성공한 사람에게 듣는 노하우와 「나잘난 박사」의 유쾌한 시사풍자까지 곁들여 읽는 재미를 더한다.

MON - SAT

AM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박철의 2시 탈출
4:00 장호일의 뮤직토포아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10:00 텐! 텐! 클럽

AM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1:00 스위트 뮤직박스
3:00 사운드 오브 뮤직

SUN

AM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박철의 2시 탈출
4:00 장호일의 뮤직토포아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10:00 텐! 텐! 클럽

AM

00:00 잭즈 스테이션
1:00 스위트 뮤직박스
3:00 사운드 오브 뮤직

ME
FM
POWER
107.7MHz
S
B
S



‘머리가 좋아지는 TV’

수요일 저녁 7시 15분에 방송되는 「머리가 좋아지는 TV」 제작진은 1회부터 18회까지 방송분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방송 시작부터 주목 받았던 「머리가 좋아지는 TV」는 학교 수업과 같은 구성, 인터넷과 TV가 하나된 진행, 적극적인 시청자 참여 유도 등이 화제가 되면서 세대간 구분없이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선정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단행본 「머리가 좋아지는 TV」는 프로그램 소개와 구성, 내용 소개를 비롯하여 제1회부터 18회



까지 방송된 문제, 정답, 해설과 출연진들의 재치를 정리해 놓아 방송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시청자로 하여금 ‘머리가 좋아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살며 사랑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편지로 담아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SBS 표준FM의 「아름다운 세상 손속, 배기완입니다」가 그 동안 청취자가 보내 온 주옥같은 감동의 편지 사연들을 모아 월간지 ‘살며 사랑하며’를 펴냈다.

창간호인 2000년 1월호에는 지난 9월 13일 첫 방송부터 11월 2일까지 방송된 내용 중 엄선된 57통의 편지가 테마별로 분류되어 수록되었다.



SBS 2000년 연중 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

새 천년, 그 첫 해의 새 날이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어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단합과 끈기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온 우리입니다.
새 천년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일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이
점차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SBS는 생명이야말로
새 천년의 희망임을 인식하고,
2000년 한 해 동안 생명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
바로 SBS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SBS 2000년 연중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 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